

##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이 자 영   남 숙 경   이 미 경   이 지 희   이 상 민<sup>†</sup>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를 문항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 중, 고, 대학생 총 3,498명을 대상으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지, 문항들 중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협하는 문항은 없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8번 문항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대학생에서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8번 문항은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8번 문항을 제외하면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8번 문항의 수정이 요구되며, 이 같은 결과는 이질적인 문화의 척도를 가져올 때 번역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자아존중감, 문항수준, 요인구조

---

\*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준 조선대 김택호 교수님과 SK에너지 사내 상담실의 김현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Tel : 02-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심리·상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왔고 지금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다. 그간 수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보고하였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혜림(1999)은 자신의 연구에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박사논문 초록집에 수록된 자아존중감 관련 논문이 700편이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러한 관심은 “자아존중감이 인간 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고 정신 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비단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최근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여전히 연구자들의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건강과 적응상의 문제가 특정한 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단계를 거쳐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아동(김문혜, 강문희, 1999; 김연희, 박경자, 1999; 김영란, 안민주, 2005; 최진아, 이숙, 1996), 청소년(김은정, 2006; 신연희, 2001; 이미리, 2005; 이숙, 2003; 장선철, 송미현, 2004), 성인(김현정, 손정락, 2006; 박현숙, 2002; 성미혜, 2005; 전정자, 김영희, 1996; 최수찬, 박해웅, 2005), 노인(김봉임, 2004; 최연희, 백경신, 2002)의 모든 발달시기를 통틀어 자아존중감이 해당 연구들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1892년 William James에 의해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과거의 예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으로 정의되었다(Magill, 1996). 이후 Coopersmith(1967)는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의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며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Wells와 Marwell(1976)은 자기애의 형태로 지각되며, 자기 수용의 과정이고, 자신에 대한 유능성이나 능력을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 외 Harter(1999)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리는 주관적 평가라는 점은 공통되어 보인다. 이러한 정의들 중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 Rosenberg(1965)의 입장이며 그의 척도는 현존하는 자아존중감 척도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척도이다(최혜림, 1999).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개념은 심리·상담, 교육, 간호·보건, 재활과 사회복지, 체육학 등 수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다른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들과 연관되어 인간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기초가 되는 동시에 필수적인 심리 특성(이미리, 2005)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그것 자체가 심리,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두 개의 환경과 행동변인을 매개하거나 중재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이주리, 2008; 최미례, 이인혜, 2003). 또한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정서와 행동, 인지과정에 관계하며,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

할 경우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장애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다(Beck & Young, 1979; Coopersmith, 1967).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수준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고 보고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적응능력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성취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긴장유발, 자신에 대한 태도 및 문제에 대한 해결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심리·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정옥분(2003)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서 인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해야 한다는 문제로 쉽게 이행될 수 있으며 더불어 척도의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과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 변인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들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척도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Rosenberg's Self-Esteem Scale)이며, 국내에서도 이를 번안해서 사용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남궁은정, 한주리, 허경호, 2008; 김은정, 2006).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Rosenberg, 1965)는 개인의 전

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을 평가하는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척도의 문항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부터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치에 대한 상태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나타내어 설명한다. 즉,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에서 측정(unidimensional measure)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수많은 분야에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다양한 문화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고 있음이 입증되어 왔는데, 28개의 언어로 번안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가지고 5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Schmitt 와 Allik(2005)의 연구 결과는 몇 가지 문화적 특징에서 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척도가 다양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점은 이 척도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만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진병재(1974)가 처음으로 Rosenberg의 척도를 번안할 당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이루어졌으나 문항 수준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차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Choi(1972)의 자존감 척도를 포함해서 총 30개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살펴보았을 뿐, 10문항의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요인구조는 파악하지 않았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국내의 연구들이 대부분 외국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충분한 타당성의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역시 너무나 빈번히 사용되어 온 척도였기 때문에 문항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상담심리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척도들이 대부분 시대적 조류에 맞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검하며 수정, 보완이 되며 사용된 것과는 달리 처음 번안한 이후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정말로 단일구인을 측정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간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어왔고 이 척도가 단일구인을 측정하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상이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가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단일차원의 척도(서수균, 2007; Crandall, 1973; McCarthy & Hoge, 1982; Rosenberg, 1965; Silbert & Tippett, 1965)라고 말한 반면,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 척도가 단일차원의 척도가 아니며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한다(최보가, 전귀연, 1993; Carmines & Zeller, 1979; Goldsmith, 1986; Hagborg, 1993;

Kaplan & Pokorny, 1969; Rosenberg, 1979; Shahani, Dipboye, & Philips, 1990). 심지어, 척도의 개발자인 Rosenberg(1979) 역시 종래의 단일차원이라고 주장했던 관점(Rosenberg, 1965)에서 입장을 바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수준을 측정하는 문항과 부정적인 평가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이 나뉘어 척도가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두 요인이 똑같은 성격차원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가지고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할 때 부정적인 평가수준의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하여 긍정적인 평가수준의 문항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미리(2005)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예로 들며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이 낮은 것과 긍정적인 평가 수준이 높은 것을 한 차원의 다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선행연구들(Larsen & Ketelaar, 1991; Watson, 1988)을 제시하였고 김은정(2006) 또한 자신의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긍정적 자기평가는 관련된 맥락이 다르고, 개인의 행동선택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민수홍, 유성렬, 2003; 백혜정, 황혜경, 2005). 한편, Goldsmith(1986)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구조가 나이나 기타 연구대상의 특성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제안했는데 Goldsmith의 가정대로 실제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요인의 구조가 단일하게 또는 그렇지 않게 나뉘지는 경우를 보여준 연구도 있었다(Mental Health Statistics Improvement Program, 2005). 연구자들은 국외에서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검증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온데 반해 국내에서는 단지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척도의 요인구조나 양호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된 논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다양한 검사 집단의 비교를 통해 문항수준에서 단일구인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해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로 연구자들이 Rosenberg의 척도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은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번역에 있어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오류가 없었는지 하는 것이다. 어떤 도구를 다른 문화의 언어로 번역할 때는 번역의 오류와 문화차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가 존재한다(Chen, Snyder, & Krichbaum, 2002; Van de Vijver & Hambleton, 1996; Van Kuyk-Minis & Liu, 1998). 언어는 문화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Russell, 1991), 이러한 이유로 어떤 특정 단어는 다른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의 구인(construct)의 의미가 다른 문화를 거치며 달라질 수도 있다(Lee et al., 2008). Nho(1999)는 뉴욕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성인이주자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었는데 이 연구에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의 영어와 한국어로 된 척도 모두를 사용하여 비교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영어와 한국어 척도, 그리고 미국태생과 한국태생의 집단을 비교하여 평균값의 차이를 본 분석에서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이 연구의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로 된 척도의 경우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78이었던데 반해 영어로 된 척도의 경우는 .88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어로 된 자아존중감척도의 신뢰도계수가 낮은 것이 혹 번역과정의 오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그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경우 번역의 문제와 더불어 고려해봐야 할 변인 중에 하나가 문화로 인한 차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문화마다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요소가 다를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각각의 문항이 문화요인에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 전체 구인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위협하지 않은가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일어로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구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협하는 문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초, 중, 고, 대학생 총 3,4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474명, 중학생은

표 1. 연구대상자 분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
남학생	234명 (49.4%)	496명 (49.6%)	368명 (37.3%)	533명 (55.4%)	1,631명 (46.6%)
여학생	240명 (50.6%)	503명 (50.4%)	619명 (63.7%)	505명 (44.6%)	1,867명 (53.4%)
전체	474명 (100.0%)	999명 (100.0%)	987명 (100.0%)	1,038명 (100.0%)	3,498명 (100.0%)

999명, 고등학생은 987명, 대학생은 1,038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전체 3,326명 중 46.6%가 남학생이었으며, 여학생은 53.4%를 차지하고 있어 남자와 여자의 수가 거의 동등하게 분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에 따른 성별분포는 표 1에 제시되었다.

#### 측정도구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 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는 1965년도에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후 1989년도에 초기에 개발한 본인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저작권(copyright)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전병재(1974), 이훈진과 원호택(1995)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 척도의 번역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이 번역본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심리검사들을 모아 편찬한 고려대학교 부속 행동과학연구소(2001)가 출판한 “심리척도 핸드북 II”에 수록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

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전체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Likert)식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인 3번, 5번, 8번, 9번, 10번은 역산문항으로 채점된다.

#### 연구절차

문항수준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초, 중, 고, 대학생 총 3,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이었으며, 대학생은 서울, 경기, 충북·충남, 전북, 경북·경남, 제주도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 집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다양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SPSS WIN 15.0을 사용하여 문항단위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먼저 전체 표본(N=3,498)의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에 따라 자아존중감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표준편차)

문항 번호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1	3.38(1.10)	3.60(1.10)	3.83(1.06)	3.95(0.78)
2	2.96(1.03)	3.20(1.07)	3.42(0.99)	3.78(0.79)
3	3.92(1.04)	3.63(1.11)	3.55(1.09)	3.81(0.89)
4	3.42(1.05)	3.53(1.01)	3.75(0.93)	3.83(0.73)
5	3.53(1.16)	3.23(1.16)	3.19(1.09)	3.48(0.97)
6	3.21(1.04)	3.39(1.08)	3.57(1.06)	3.73(0.87)
7	3.53(1.14)	3.38(1.15)	3.32(1.05)	3.53(0.92)
8	2.55(1.08)	2.32(1.04)	2.22(0.10)	2.28(0.90)
9	3.80(1.15)	3.36(1.26)	3.32(1.18)	3.81(0.96)
10	3.62(1.19)	3.19(1.21)	3.03(1.15)	4.05(0.97)

**단일문항-총점 간 상관**

각 문항 별로 산출한 단일문항-총점 간 상관관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23 ~ .7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항 8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43 ~ .71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p < .001$ ). 그러나 문항 8에서는 초등학생(-.23), 중학생(-.18) 그리고 고등학생(-.02)의 경우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학생에서도 .14로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항총점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문항 번호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1	.53	.62	.54	.65
2	.49	.52	.43	.66
3	.45	.56	.55	.58
4	.49	.46	.43	.55
5	.48	.55	.52	.62
6	.47	.61	.63	.70
7	.51	.58	.61	.69
8	-.23	-.18	-.02	.14
9	.52	.57	.59	.66
10	.45	.51	.43	.63

**내적 합치도**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신뢰도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신뢰도계수가 .75 ~ .87로 높게 나타났다(표 4). 특정 문항을 삭제했을 때의 Cronbach'  $\alpha$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항 8을 삭제하였을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항 8을 삭제했을 때 신뢰도계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81, 중학생 .85, 고등학생 .83 그리고 대학생 .89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항 8이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인분석**

전체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표 4. Cronbach' α 값과 문항제거시 Cronbach' α의 변화값

	문항번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Cronbach' α		.75	.80	.80	.87
문항제거시 Cronbach' α의 변화값	1	.71	.77	.77	.85
	2	.72	.78	.79	.85
	3	.72	.77	.77	.85
	4	.72	.79	.79	.86
	5	.72	.78	.77	.85
	6	.72	.77	.76	.84
	7	.71	.77	.76	.84
	8	.81	.85	.83	.89
	9	.71	.77	.77	.85
	10	.72	.78	.79	.85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Hampton, 2005)의 분석방법을 이용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직각회전법(varimax)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주성분분석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이 넘는 요인의 개수는 표본대상에 따라 2개(중·고등학생) 혹은 3개(초등학생)가 산출되었으나, 최소평균 편상관분석(MAP; Minimum Average Partial Analysis)과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사용하고(O'Conner, 2000), 부정적 문항 오류(negative item bias)를 고려했을 때(김아영, 김세영, 2003; Marsh, 1996), 추출 가능한 요인의 수는 1개의 단일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그림 1의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살펴보면, 그래프가 요인수 1 다음에서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척도가 1개의 단일 요인임을 지지한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1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36.75%(고유값 = 3.675)이었고, 중학생의 설명력은 41.37%(고유값 = 4.137), 고등학생의 설명력은 38.58%(고유값 = 3.857), 대학생의 설명력은 48.16%(고유값 = 4.8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 요인의 척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항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역산문항)”의 경우 초등학교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문항-총점간 상관을 고려했을 때,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경우, 동일한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삭제 또는 다른 요인으로 보는 이 전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이호준, 2006; 홍창희, 한규석, 2007), 문항 8은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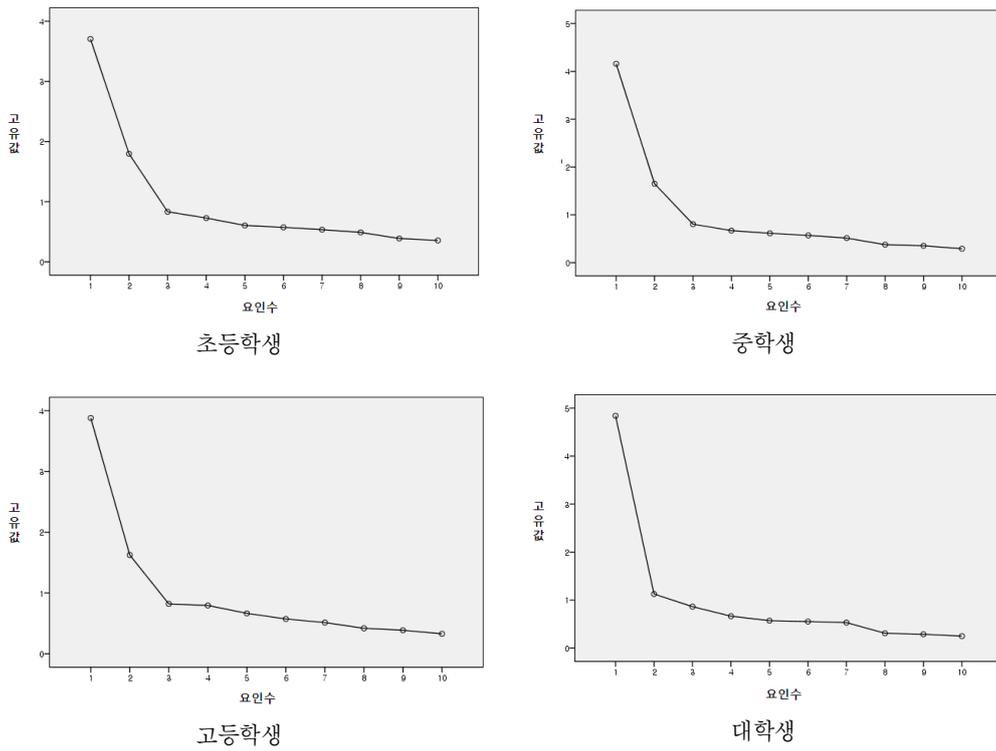


그림 1. 대상별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표 5. 대상별 요인분석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문항번호	부하량	문항번호	부하량	문항번호	부하량	문항번호	부하량
1	.75	1	.78	6	.77	6	.78
7	.72	6	.76	7	.74	7	.78
6	.70	7	.74	1	.72	2	.77
4	.68	2	.68	9	.66	1	.76
2	.67	4	.65	3	.64	9	.72
9	.55	3	.63	5	.63	5	.72
5	.54	5	.61	4	.61	10	.71
3	.50	9	.61	2	.59	4	.66
10	.48	10	.55	10	.51	3	.65
8	-.36	8	-.27	8	-.05	8	.16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한국어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이는 그 동안 자아존중감 척도에 있어 제기된 구인의 단일차원과 다차원 논쟁에 대한 검증과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번역 오류로 인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척도의 단일문항과 총점 간 상관과 내적합치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단일문항과 총점간의 상관관계는 문항 8번을 제외하고 연구 대상자의 모든 문항에서 .43에서 .71로 중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해당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동일한 수준(손진희, 2008)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에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항 8번의 경우 다른 문항과 달리 모든 집단에 있어서 부적 혹은 낮은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8번 문항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일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23, -.18, -.02의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대학생에서는 .14로 낮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이하의 낮은 상관을 보이는 8번 문항이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서 적절치 못한 상관(이영호, 송중용, 1991)임을 확실히 나타냈으며, 이는 각 집단별 자아존중감 평균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집단간 및 문항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다른 문항들에 비해 8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

균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높은 연령에 따라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는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초등학생 점수(2.55)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의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부적상관을, 대학생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령대에 따른 언어력과 어휘력의 차이로 인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심하게 8번 문항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는 독해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령대에 따른 언어력, 어휘력의 차이로 인해 같은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문항의 개발 시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능력을 고려하여 문항을 다르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하고자 Cronbach'  $\alpha$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  $\alpha$  신뢰도계수는 .75~.87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수용되는 수준이 .70임을 고려하면(이영준, 1991; 최보가, 전귀연, 1993),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 문항을 삭제했을 때의 Cronbach'  $\alpha$  신뢰도계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역시 문항 8번을 제외하였을 때 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를 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8번 문항의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앞서 살펴본 단일문항과 총점 간 상관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8번 문항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 분석의 결과에서는 초, 중, 고, 대학생의 연구

대상자 집단 모두에서 일관된 단일요인 구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요인의 척도라고 보고된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Hensley, 1977; Hensley & Roberts, 1976; Marsh, 1996; Pullmann & Allik, 2000; Whiteside-Mansell & Corwyn, 2003). 최근 들어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단일차원과 다차원 논쟁에 대한 의문성을 검증한 바, 8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을 훨씬 크게 보고하고 있어 단일요인 척도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다차원 척도라고 주장이 있으나 이는 척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척도의 진술방식에 동의하는 태도인 부정적 문항 오류(negative item bias)로 설명되어진다(Smith, 2004; Schmitt & Allik, 2005; Van Herk, Poortinga, & Verhallen, 2004). 즉, 자아존중감 척도 관련 몇몇 연구에서 단일요인구조가 아닌 이요인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척도의 제시방식(긍정진술문 혹은 부정진술문)에 따른 측정오류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artifact)일 뿐이라는 주장이다(Marsh, 1996). 단일요인 척도로서의 집단별 설명력은 각각 36.75%, 41.37%, 38.58%와 48.16%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8번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요인분석에서도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Schmitt와 Allik(2005)의 연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콩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탄자니아는 요인부하량이 부적적으로 나타났다고,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는 53개국 중에서 10개의 나라가 8번 문항에 대하여 .30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역산문항인 8번 문항이 모든 집단에서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원인을 살펴보면, 소망(wish)의

의미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들 수 있다(Farruggia, Chen, Greenberger, Dmitrieva, & Macek, 2004).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어서도 이 문항의 낮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혹은 중국과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어 소망(wish)의 의미가 현 상태가 부족함을 표현하기 보다는 이상적인 상태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8번 문항의 낮은 요인부하량은 번역상의 오류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8번 문항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가정법이 쓰이지 않는 우리말의 특성을 번역 과정상에서 고려하지 못해 해석상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8번 문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엔 나를 더 존중하고 싶다.” 혹은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로 번역해야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8번 문항이 언어상의 모호성이 있어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 있음을 지적한 Schmitt와 Allik(200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문항을 제시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해석 오류에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부분 또한 후속 연구에서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 척도가 단일 척도임을 확인하였고, 8번 문항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변별해내는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8번 문항의 문항변별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역의 오류와 이로 인한 해석상의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어진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화적인 차이점과 한계점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많은 심리검사와 척도들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아존중감 척도 이외의 가정법 표현이 포함된 척도들을 확인하여 번역상의 오류를 명확하게 바로잡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 심리상태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척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지속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담연구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상담심리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가 1974년 전병제에 의해 처음 번안된 이후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아무런 점검이 없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척도들 역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재점검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 보완이 되어 척도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MMPI의 남성성-여성성 척도에서 ‘화분을 키운다’와 같은 문항이 1950년대에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문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기에 MMPI 개정판에서는 제외되었듯이, 이 전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점검된 척도의 문항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변천에 맞춰 혹은 대상에 따라 척도문항의 재검증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점검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외에도 상담심리분야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척도에 대해 추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즉, 8번 문항 오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의 정확한 원인(번역 혹은 해석의 오류 등)을 밝히지 못했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추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8번 문항의 수정작업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고전검사이론에 근거한 분석이었기에 문항과 피험자 능력의 불변성 개념이 유지되지 않으며 피험자 능력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항반응 이론을 바탕으로 문항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재차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편 (2001).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 김문혜, 강문희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1.
- 김봉임 (2004).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와 자가간호에 관한 비교

- 연구. 재활간호학회지, 7(2), 140-148.
- 김아영, 김세영 (2003). 명시적 부정문항과 암묵적 부정문항이 심리척도 요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6(1), 39-52.
- 김연희, 박경자 (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영란, 안민주 (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 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26, 105-124.
- 김은정 (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남궁은정, 한주리, 허경호 (2008). 대학생의 갈등 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완벽주의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화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5(1), 357-380.
- 민수홍, 유성렬 (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형사정책, 15(2), 159-188.
- 박현숙 (2002).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3), 352-362.
- 백혜정, 황혜경 (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pp.115-130). 서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성미혜 (2005). 여대생의 섭식장애, 신체증상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9(2), 155-166.
- 손진희 (2008).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동적 사고: 인터넷 과다사용자 사고 질문지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9(1), 143-168.
- 신연희 (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3(1), 107-132.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숙 (2003). 청소년기 여고생의 자살위험성, 자아존중감 및 자아기능 강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55-163.
- 이영준 (1991). 다변량 분석, 서울: 석정.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83-94.
- 홍창희, 한규석 (2007). 한국 정서표현성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33-148.

-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옥분 (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전자, 김영희 (1996). 성인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41-54.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수찬, 박해웅 (2005). 근로자의 사회정서적문제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177-196.
- 최연희, 백경신 (2002).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3), 1-11.
- 최진아, 이 숙 (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 *가정과학연구*, 6, 1-8.
- 최해림 (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83-197.
- Back, A. T., & Young, J. (1979). Handbook of studies on depress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7, 719.
- Carmines, E. G., & Zeller, R. A. (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Chen, K. M., Snyder, M., & Krichbaum, K. (2002). Translation and equivalence: The Profile of Mood States Short Form in English an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9, 619-624.
- Choi, C. H. (1972). The Manual of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Yonsei Non-chong*, 9, 877-101.
- Crandall, R. (1973).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and related constructs. In J. P. Robinson & P. Shaver (Eds.), *Measurement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45-167).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 (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pp.4-5, 96-117) New York: Academic Press.
- Farruggia, S. P., Chen, C., Greenberger, E., Dmitrieva, J., & Macek, P. (2004). Adolescent self-esteem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Testing measurement equivalence and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719-733.
- Goldsmith, R. E. (1986). Dimensionality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 253-264.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agborg, W. J. (1993).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A concurrent validity study. *Psychology in Schools*, 30, 132-136.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Hampton, N. Z. (2005). Testing for the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98-113.
- Hensley, W. E. (1977).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on Rosenberg scale of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41*, 829-830.
- Hensley, W. E., & Roberts, M. K. (1976). Dimensions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Reports, 38*, 583-584.
- Kaplan, H. B., & Pokorny, A. D. (1969). Self-derog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49*, 421-434.
- Larsen, R. J., & Ketelaar, T. (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32-140.
- Lee, S. M., Moon, K. S., Puig, A., Cho, E., Lee, S. Y., Back, S. H., & Woo, Y. K. (2008).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Korean Mood State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1*, 42-50.
- Marsh, H. W. (1996). Positive and negative global self-esteem: A substantively meaningful distinction or artif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810-819.
- McCarthy, J. D., & Hoge, D. R. (1982). Analysis of age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of adolescent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72-379.
- Magill, F. N. (1996).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ology*. London: Fitzroy Dearborn.
- Mental Health Statistics Improvement Program. (2005).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Retrieved October 28, 2008, from <http://www.mhsip.org/reportcard/rosenberg.pdf>
- Nho, C. (1999).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merican and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New York City Area*. Unpublishe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O'Conne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2*, 396-402.
- Pullmann, H., & Allik, J. (2000).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ts dimensionality, stability and personality correlates in Estonia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701-71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ussell, J. A. (1991). Culture and the categorization of emo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 426-450.
- Schmitt, D. P., & Allik, J. (2005). Simultaneous administr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53 nations: Exploring the universal and culture-specific features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49-161.

- Psychology*, 89, 623-642.
- Shahani, C., Dipboye, R. L., & Philips, A. P. (1990). Global self-esteem as a correlate of work-related attitudes: A Question of dimensi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276-288.
- Silbert, E., & Tippett, J. (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017-1071
- Smith, P. B. (2004). Acquiescent response bias as a aspect of cultur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50-61.
- Van de Vijver, F., & Hambleton, R. K. (1996). Translating tests: Some practical guidelines. *European Psychologist*, 1, 89-99.
- Van Herk, H., Poortinga, Y. H., & Verhallen, T. M. M. (2004). Response styles in rating scales: Evidence of method bias in data from six EU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346-360.
- Van Kuyk-Minis, M. H., & Liu, L. (1998). Issues related to the translation of measurement scales: A comparison of versions of the Arthritis Impact Measurement Scale. *The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18, 143-156.
- Watson, D. (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s: thei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s, perceived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20-1030.
-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CA: Sage.
- Whiteside-Mansell, L., & Corwyn, R. F. (2003). Mean and covariance structures analyses: An examination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mong adolescents and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163-173.

원 고 접 수 일 : 2008. 11.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13

게 재 결 정 일 : 2009. 2. 9

##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Jayoung Lee      Sukkyung Nam      Mi-kyoung Lee      Ji-hee Lee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tem-level validity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RSES). Specifically, a total of 3,498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assess the unidimensionality of RSES as well as item-level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negative item-total correlations on the eighth item of the RSES. Item-total correlations of the same item were relatively low in college students as well. In addition, the troublesome nature of RSES Item 8 existed in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es. Therefore, item 8 of the RSES should be cautiously translated and revised to prevent a degree of ambiguity that may cause it to be easily misinterpreted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Key words : Self-Esteem, Item-Level Analysis, Factor Structure*